칼 럼

정 기 연 주필

뉴 새마을운동정신으로 경제선진국을 만들자

4월 22일은 제10회 새마을의 날 기념일이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전국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50주년 '제10회 새마을의 날'을 맞이하여 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군 새마을단체별 기념식과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환경 정화 활동, 잘살기 다짐대회 등의 다양한 기념식을 했다.

새마을 운동은 60~7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난을 극복하고 잘사는 나라를 이룬 원동력이 되었으며, 뉴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에 변화 도전 창조 정신을 추가하여 선진국의 위상을 지키며 잘살기 운동이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는 창의와 창조를 주축으로 하는 제4차 산업경제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가려면 기존의 생각과 방법을 바꾸고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있어야 한다. 교육도 암기보다는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창의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에서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저비용 고능률의 정부와 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망국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참신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누가 적임자인가는 앞으로 전개될 제4차 산업경제를 이끌어 갈 과학적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제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 지능성, 예측 가능성이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 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가능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민주화의 늪에 빠져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를 앞세워 무사 안일한 사고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뒤지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차 산업 구조인 농업 경제에서 이차 산업인 공업으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 운동이었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후진국에서 배워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3차 산업인 지식 정보화 산업에서 발전한 제4차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 새로운 잘살기 운동인 뉴 새마을 운동을 펴서 사치와 낭비 무사 안일에서 벗어나 뉴 새마을운동정신인 변화, 도전, 창조의 정신이 국민의 가슴속에서 싹트게 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원조를 받던 빈국에서 이제는 외국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면서 사는 선진국이 된 것은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 정신의 실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면서 후진국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면서 잘 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동남아와 아프리카 40여 개의 나라에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북한도 뉴 새마을운동정신인 변화, 도전, 창조의 정신이 국민의 가슴속에서 싹트게 하고 이것이 공산집단을 변하게 하여 통일을 할 수 있는 과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역사상 가장 창조력이 강한 통치자는 세종대왕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국경선을 확정했고 남으로는 왜구를 물리쳐 대마도를 정벌했으며 내치로는 국민의 문맹 퇴치 교육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였고 국민 생활이 과학에 눈을 뜨게 하려고 신분 차별 없이 과학자를 우대해 각종 과학 기계를 창제하셨다.

새마을 운동의 초창기인 60년대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밀고 나간, 도전 정신이 강한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면에서 현대 건설을 이룩한 정주영 회장의 "해 봤어·"의 도전정신은 오늘날 현대 그룹을 이룩했다.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남북통일 정책을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社 說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았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모습은 남북관계의 새 전환점을 보여 줬으며, 남북군사합의 등 후속 조치들로 긴장이 크게 완화하는 성과를 봤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북미 정상간 '하노이 노딜'을 분기점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고 이에 따른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기에다 최근 불거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그에 따른 각종 추측의 난무는 진위를 떠나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당시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통일을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여러모로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합의 정신을 되살리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틀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4·27선언 2주년을 맞아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동해 북부선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해 남북 철도 연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에도 주력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다시 추진한다. 분단 이래 남북 정상 간 첫 만남의 결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 기념행사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남북을 오간 선박과 항공기가 전혀 없었고, 남측을 방문한 북측 인사 역시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의 기본 전략에 변화가 없는데 남한의 움직임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코로나19로 북한 경제도 어려워진 데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남한의 정치 지형 변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보건협력이 시급한 때다. 북한은 보건과 인도주의 분야에서라도 우선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 특별경계 강화 추진

보성소방서는 4월 30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것을 예상됨에 따라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 소방차량, 인원 사찰 고정배치등 화재 특별경계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찰관계자에게 연등 및 전기 등 화기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귀중한 문화재 보호 및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고 만일의 사고 시 자체 소방시설 이용(소화기 등)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사찰을 찾은 방문객에게 몇가지 당부 드리고 싶다.

첫째, 전통사찰 주변에서 담배 흡연 행위 절대금지하고 추락 위험성이 있으니 지정된 장소로 이동 해야 한다.

둘째, 사찰에 연등켤 때 잠깐의 부주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생각하자.

아울러 사찰 주변에 산이 입접하는 만큼 산불 예방 활동에 각별히 계도할 방침이다.

황신옥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화재 등 안전사고 경각심을 갖자

겨울철에 비해 따뜻한 봄철은 상대적으로 화재발생이 많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전국에서 발생하고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마련하고자 순찰, 화재예방홍보, 훈련 등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시민 개개인 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졌어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요즘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안전의식도 이완되기 쉬워 각종 화재등 안전사고가 염려가 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 고 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 스 (062) 222-5547

회 장·발 행 인·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